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무에리수에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돌팔이장님이 거리로 다니면서 자기에게 점을 치라고 할 때 외치는 소리.

문헌의 첫 기록	수록 용례	수록 내용
20세기	1개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3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무에리수에'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돌팔이장님이 거리로 다니면서 자기에게 점을 치라고 할 때 외치는 소리.

무에리수에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무에리수에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무에리수에 **사전 표기 요약**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1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무에리수에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1종

무에리수에

무에리수에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변화

‘무에리수에’는 20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무에리수에

전체 용례 1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무에리수에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무에리수에

출처 1949 조선 말 큰 사전 2 용례 01

문헌 용례

무에리수에.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무에리수에의 보충 설명

서울에서 나서 자란 작가가 20세기 전반기 무렵의 서울 풍경을 기록한 글에 따르면 집이 없는 가난한 점쟁이는 대지팡이를 짚고 무에리수에, 무에리수에라고 외치고 다녔다고 한다. 다른 기록에서는 돌팔이 점쟁이가 자기에게 점을 치라고 무에리수에를 외치면서 거리로 다녔다고 하며, 문수(問數)요라고 외치면서 다니거나 피리를 불거나 하면 사람들이 불러다 점을 쳤다고 한다.##‘무에리수에’는 ≪조선 말 큰 사전 2≫(조선어학회, 1949)에서 처음 확인된다. ‘무에리수에’와 함께 ‘모어리수에’도 있는데 풀이는 약간 다르지만 점을 치라며 외치는 소리인 점은 같다. 또한 두 말 다 원말로 ‘문수(問數)에’를 제시한 것을 보면 ‘문수에’라는 말이 ‘무에리수에’나 ‘모어리수에’로 변했다고 본 것이다. 장사꾼이 반복해서 외치는 말은 상투적인 표현으로 굳어지기도 하므로 문수에 하다가 ‘문’을 길게 늘여 ‘무에리’ 또는 ‘모어리’라고 발음하는 것으로 굳어진 듯하다. 1990년 9월 14일 문화부 공고 제36호로 발표된 <표준어 모음>에서 ‘모어리수에’는 비표준어로 처리되었다.

무에리수에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어효선 2000 《내가 자란 서울》 대원사
- 신기철 2008 한국문화대사전 제8권 한울터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무에리수에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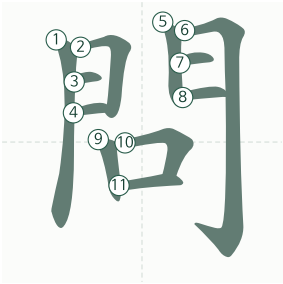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問

뜻·음 물을 문

총 11획 · 부수 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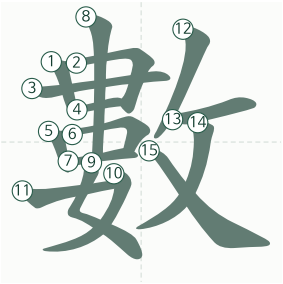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問/

數

뜻·음 셈 수

총 15획 · 부수 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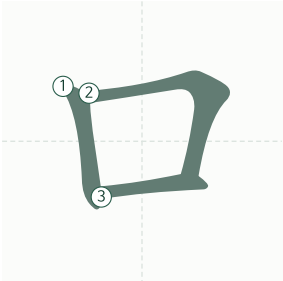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數/

口

뜻·음 입 구

총 3획 · 부수 口





hanja.wordrow.kr/한자/口/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 사전 상세 항목이 없는 본문 한자: 攴.